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1년도 제8호

**<칼럼 기고>**

**“맞아도 되는 나이는 없다, 맞아도 되는 사람도 없다”**

글 / 칼럼니스트 고완석

### 『 스포츠윤리센터 』

이숙진 이사장 사임...“조사 전문 인력 부족”

### 『 국민체육진흥공단 』

“스포츠산업 코로나19 극복 위한 총력 지원 나서”  
“취약계층 스포츠 꿈나무 육성 지원”

### 『 대한하키협회 』

“공정위 칼 빼든다...폭력 부조리 대대적 청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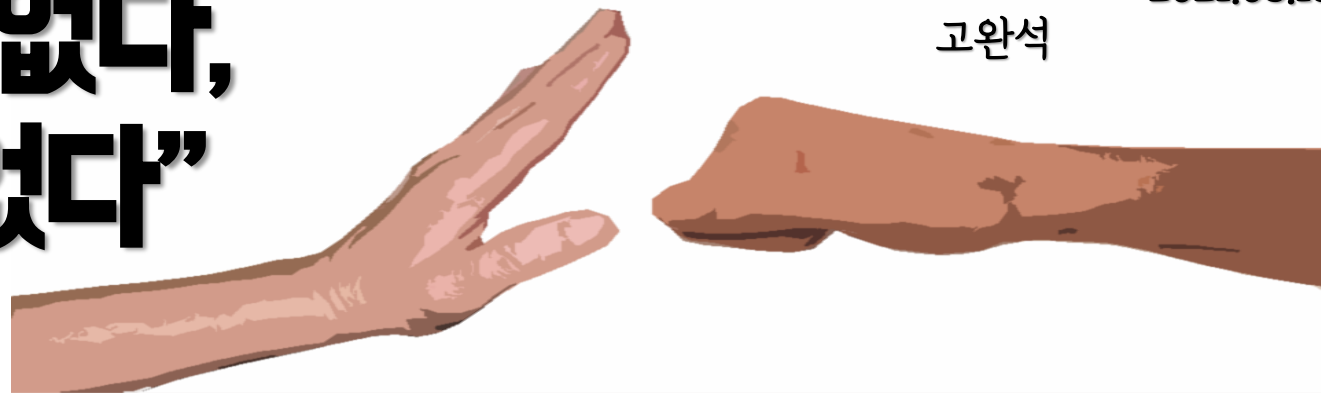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 “맞아도 되는 나이는 없다, 맞아도 되는 사람도 없다”



지난 겨울 ‘프로배구’에서 시작된 ‘학교폭력’ 이슈가 다양한 스포츠계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스포츠계 학교폭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승승장구하던 배구스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면서부터였다. 파이팅 넘치는 모습에 실력까지 출중해 인기를 끌어오던 배구스타는 ‘학교폭력’을 인정하며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사회적 공분은 그칠 줄 모르는 분위기이다.

이후 여러 스포츠스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연이어 추가 폭로되고 있다. 물론 제기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거짓폭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스타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도 스포츠계에서 ‘학교폭력’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인격과 영혼을 황폐화 시킬 정도로 심각한 범죄이다. 특히, ‘학교폭력’의 트라우마는 피해자가 성인이 돼서까지 영향을 미친다. 최근 잇따라 폭로되고 있는 ‘학교폭력’ 범죄 역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십년 전의 일이지만 피해자들은 그 사건을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만큼 피해자들은 그 사건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는 채 피해한 삶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스포츠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생선수의 미래와 꿈까지도 짓밟아 버릴 수 있다는 데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학생선수의 미래와 꿈을 감독, 교사, 선배들이 담보잡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에서는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서는 피해자 중심 처리체계 구축, 제재 강화 등 예방과 제도 보완,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및 인권의식 제고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학교운동부 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보다 앞서 우리사회가 ‘학생선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사회는 학생선수를 ‘학생’보다는 ‘운동선수’로 보는 경향이 크지 않았는지 모른다.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폭력’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지, 경기 성적 또는 메달색깔을 위해서는 ‘폭력’이 필수적이라는 위험한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명백한 사실은 ‘학생선수’는 ‘운동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이자 아동이라는 것이다. 누구에게도 ‘운동선수’라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아동들에게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하지 않았다. 모든 아동은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이며 권리의 주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사회는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지님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굿네이버스에서는 국회에서 여러 아동단체들과 함께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그 때 아동대표로 참여한 9살 임한울 아동의 발언을 모든 스포츠계 종사자들과 ‘학교운동부’와 관련된 사람들이 귀담아 듣기를 바란다.

“이 세상에 맞아도 되는 나이는 없습니다. 맞아도 되는 사람은 더욱 없습니다.”

\*칼럼니스트 고완석은 아홉 살 딸, 다섯 살 아들을 둔 지극히 평범한 아버지이다. 국제구호개발 NGO인 굿네이버스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사임... “조사 전문 인력 부족”

뿌리 깊은 스포츠 비위 근절을 위해 정부가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 초대 이사장이 센터의 조사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취임 반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숙진 이사장이 19일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5일 센터 출범과 함께 취임 지 7개월 만입니다.

이 이사장은 사임사에서 "센터는 스포츠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과 스포츠 선수들의 기대와 여망을 해결하기에는 매우 부실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출범했다"면서 "(출범 당시) 센터 핵심 업무인 조사 관련 경험이 있는 경력직은 팀장 이하 인력 중 2명에 불과했고, 대다수 인원은 사업, 행정, 홍보 경력 직원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스포츠계에 만연한 폭력,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센터) 출범을 서둘렀으나, 센터 필요 인력에 대한 정확한 직무 분석과 이에 기반한 채용이 병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센터의 기본적 책무와 이를 수행할 조사 인력의 불일치는 센터 업무의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스포츠 학교폭력 미투'가 사회문제화되고 신고 사건이 쌓여가고 있어 어려움은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경력 있는 조사 전문인력의 확보와 조직 개편,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센터가 명실공히 준사법적 기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코로나19 극복 위한 총력 지원 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은 스포츠산업 전방위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추진단은 조현재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여 총 4개반(총괄반, 피해극복 지원반, 체육시설 안전관리 지원반, 기금조성 상생협력 지원반)으로 구성되며, 현장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각 반의 반장은 사업본부장이 수행한다.

공단은 이번 지원사업을 위해 124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기업지원, 시설안전 및 방역대응, 소상공인 및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세부 지원방안으로는 ▲스포츠기업 원스톱 금융지원 ▲스포츠 중소기업 사업자금 지원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비대면 스포츠 코칭 시장 활성화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스포츠기업 재기지원 ▲실내체육시설 지도자 고용안정화 지원 등이 있다.

조현재 이사장은 “공단이 체육계 코로나19 위기극복의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역량을 집중해 현장중심의 지원방안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기업 대상 금융지원(1261억원), 상생협력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85개 입주업체, 13억5000만원), 스포츠시설 특별 방역점검(국가체육시설 87개소, 고위험시설 220개소) 실시 등 다각적인 대국민 지원을 펼친 바 있다.



## 취약계층 스포츠 꿈나무 육성 지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21년 체육인재 장학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체육인재 장학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선수들이 잠재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는 시·도 교육청 심사를 거쳐 1천350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학생은 올해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10개월간 매월 장학금 카드에 포인트(40만원 상당)를 받는다.

장학금 포인트는 스포츠와 학업 활동에 한정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법정 저소득가구(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면서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에 2021년도 선수등록이 된 전국 초·중·고 학생 선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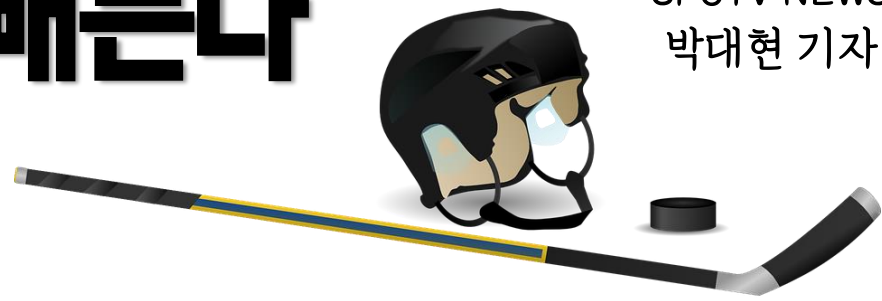
현재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kspo.or.kr)** 또는

**체육진흥팀(☎ 02-410-129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대한하키협회 '공정위' 칼 빼든다 "폭력 부조리 대대적 청산"

SPOTV NEWS  
박대현 기자 2021.03.18



한국 하키계가 지도자의 폭행과 폭언, 계약금 갈취, 제보자 색출 등 각종 난맥상을 드러낸 가운데 대대적인 내부 개혁을 선언한 대한하키협회가 본격 대응에 나선다.

대한하키협회는 18일 서울 송파구 하키협회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가해 혐의자들의 징계를 논의한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이사회에서 단체 설립 이래 최초로 스포츠윤리담당 부회장직을 신설했다. 아울러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위원 전원을 비하키인으로 구성했다.

대한하키협회 이상현 회장은 "폭력과 불공정 문제는 하키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자신 역시 비하키인 출신인 만큼 인맥에 얽매이지 않고 이번 사안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스포츠타임 단독 보도로 수십 년간 굶은 하키계 환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직 실업팀 지도자가 과거 대학 감독 시절 여자 선수들의 계약금을 장기간에 걸쳐 가로채 도마 위에 올랐고 폭행과 폭언, 인권침해 역시 만연하다는 제보자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이자 현재는 실업팀 지도자로 활동 중인 A감독은 과거 김해 소재 한 대학에서 1993년부터 2019년까지 감독으로 재직했다. A감독은 실업팀에 입단한 선수들의 계약금을 장기간에 걸쳐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다. A감독이 대학 감독으로 재임한 동안 지도한 여자 선수들은 100명이 넘는다. 실업팀에 입단한 선수만 최소 수십 명으로, 선수들의 제보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피해 금액은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국내 체육계의 화두로 떠오른 지도자의 선수 폭행과 인권침해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체육계를 넘어 전사회적인 이목을 끌었다. 스포츠타임 보도 이후 하키계에 '폭력 미투' 바람이 불었다. 여자 선수들이 중학 시절, 지도자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다.

제보자 B씨는 스포츠타임과 전화 통화에서 "2005년부터 수원 소재 중학교 하키 코치로 재직 중인 C코치에게 중학생 시절 (정도 이상의) 폭언 폭행을 당했다. 그때는 물론 지금도 폭행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상욕은 다반사고 지하실에서 발로 차이고 밟히고 스틱으로 머리 맞고, 그런 생활이 일상이었다. 폭행을 견디다 못해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면 더욱 심한 폭행이 이뤄졌다"고 토로했다.

가해 혐의자들이 보도 이후 피해자에게 회유와 협박성 발언을 가한 것이 추가 확인돼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자신을 A감독이 지도한 김해 소재 대학 하키부 출신이라 밝힌 D씨는 "최근 스포티비뉴스 기사가 보도된 뒤 대학 시절 E코치로부터 연락이 와 '확인서'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제보했다.

D씨에 따르면 E코치는 선수에게 걷은 계약금을 개인 용도로 쓴 게 아닌 하키부 전용 버스나 신입생에게 지급할 장비 구매 등에 썼으니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사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D씨는 "확인서에 담긴 세부 내용은 일절 설명 없이 (무작정) 쓰라고만 했다. 쓰고 싶지 않았지만 (E코치) 눈치가 보여 안 쓸 수가 없는 분위기였다. 다른 선수들 말을 들어보니 전부 반강제적으로 썼다고 한다.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진까지 찍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A감독이 실업팀 감독으로 자리를 옮길 때 '버스는 E코치의 퇴직금으로 (여기고) 쓰겠다' 말한 적이 있다. 그 버스는 당시 학부모 14~15명이 100만 원씩 내서 산 버스다. 당시에 퇴직금으로 버스를 가져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대한하키협회는 스포츠공정위에서 A감독과 C코치, E코치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협회는 진상조사와 사실 확인을 토대로 해당 사안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주간 스포츠 소식

16조 버리고 올림픽 택했다...해외관중 포기, 日스가의 도박

<https://news.joins.com/article/24016603>

해외 관중 단념한 도쿄올림픽...티켓 63만장 환불 전망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54016&code=61131211&cp=nv>

이영하 “집합시킨 적 있지만 특정한 가혹행위 없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48294&code=61161211&cp=nv>

전북스포츠과학센터 선수 밀착지원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3224>

[김세훈의 스포츠IN] 우리 브랜드가 강해져야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103210652003&sec\\_id=530101&pt=nv](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103210652003&sec_id=530101&pt=nv)

[기रो에션 한국외교]③ 요원했던 한일관계 개선...스포츠로 물꼬?

<https://www.news1.kr/articles/?4247119>

석달간 13억원 베팅... '불법 스포츠 토토' 30대 男, 2심서 유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79846628984960&mediaCodeNo=257&OutLnkChk=Y>

군정 역점 사업 '스포츠마케팅'...감시 사각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3479&ref=A>

박정, 5년마다 스포츠진흥 기본계획 수립 '스포츠기본법안' 발의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77963>

'광문고 축구클럽'발 집단감염에 전국 스포츠클럽 전수점검

<https://www.news1.kr/articles/?4243907>

SOK·국가대표선수협회, 발달장애인 스포츠발전 이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1810295172682>

경남도, '경남 스포츠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6\\_0001372043&clD=10812&pID=108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6_0001372043&clD=10812&pID=10800)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